



# 곡성 소중한 자산 '어르신들 삶의 기록' 담아낸다

### '곡성 어르신들 인생이야기' 구술집 출판기념회 성료 8번째 출간... '삶의 지혜 후세 전달·문화 가치 보존'

"살아온 것을 말하자면 책 3권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구술집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삶을 정리해 기록으로 남긴 소중한 이 책이 바로 우리 고장의 큰 자산입니다."

곡성군이 곡성 어르신들의 굴곡진 삶 속에서 묻어간 인생의 보배같은 이야기를 묶은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구술집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구술집 출판기념회를 개최

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강덕구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진호건 전남도의원, 심정섭 곡성군노인회장, 노명숙 곡성교육장, 방현용 농협곡성군지부장, 류종표 곡성단군송모회장, 조희용 곡성향교 전교와 구술집 집필을 총괄한 김래성 곡성일보 대표, 정연우 작가, 곡성군 11개 읍·면장 및 노인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술 참여자 22명은 인생 후반에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신의 행복을 크게 높여준 곡성 어르신들의 인



최근 곡성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열린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생이야기 구술집을 보고 감회깊은 소감을 풀어냈다.

처음 수시간 동안의 인터뷰 과정에서 가슴에만 담아 놓았던 응어리진 이야기

를 꺼내면서 후련함을 느낄 때의 행복으로만 그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드라마처럼 펼쳐진 미니 자서전으로 변신한 책이 나와 또 한번 감동했다.

특히 8번째 이어져 온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구술집 출간이지만 올해 처음 구술 참여자와 가족 및 주민들이 한 데 모여 공식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면서 참여자들에게 더없이 큰 3번째 행복을 선사해 주목을 받았다.

조상래 군수는 "이 구술집이 어르신들의 행복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간 원활한 소통창구가 되고 삶의 지혜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구술집이 어르신들의 행복 매개체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값지고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전행사에서 재롱잔치를 선보인 곡성을 아해뜰어린이집 원생들이 큰 관심을 끌었으며, 강기순 옥곡면 신흥마을 이장이 어르신들에게 예쁜 장미 향화를 만들어 제공해주면서 훈훈함이 더해졌다. /곡성=김영필 기자

## 정인화 광양시장, 지역 현장 소통행보 '눈길'

### '현장 소통의 날' 5개소 방문...건의사항 점검·지시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역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보에 나섰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양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보', 11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정인화 시장은 이날 ▲선소수문 앞 부유쓰레기 처리 건의 현장 ▲신아리보루와 등산로 정비 및 관리 건의 현장 ▲갑대래 공신각 문화재 관리 및 진입로·주차장 확충 건의 현장(사진) ▲섬진강(중도배수장 인근) 둔치 정비 건의 현장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이주단지 조성 현장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찾은 선소수문 앞 부유쓰레기 처리 건의 현장엔 장마철마다 부유 쓰레기가 대량 유입돼 하천 오염과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정인화 시장은 쓰레기 유입의 원인과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한 후,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방안과 입구부에 오일펜스를 치는 방안 등 각각의 소요 예산, 인력 운용, 추진 방법 등을 비교·분석해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

인지 검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 일정으로 전남도 지정 문화유산인 신아리보루와 등산로 정비 건의 현장을 찾은 정 시장은 직접 민원을 청취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다.

정 시장은 등산로 입구 측면 수로 정비와 도로 위로 돌출된 나무의 전정, 노후된 나무계단 등 등산로 정비를 지시했다. 또한 최소한의 별목으로 신아리보루 조망권 확보 방안과 대체 조망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임진

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하고 젊은 나이에 전사한 갑대래 공을 기리는 공신각을 찾아 문화재 정비 현황과 진입로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색이바랜 충효 문헌판을 보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중도배수장 인근 섬진강 둔치 정비 현장,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주단지 조성 현장 등을 찾아 세세히 점검했다.

정인화 시장은 "시민과의 시정 공감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통행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담양 관광지서 '지구마블 남도여행' 촬영

### 죽녹원·메타세쿼이아길·관방제림 등 소개...내년 3월 방영

전국 대표 내륙 관광도시 담양에서 최근 여행 예능 프로그램인 '지구마블 남도여행'의 촬영이 진행됐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촬영은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을 배경으로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출연진으로 인기 여행 크리에이터 원지가 참여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구마블 남도여행'은 주사위를 던져 세계 곳곳의 명소를 탐험하는 '지구마블 세계여행'의 국내판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숨은 명소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담양 촬영에서는 푸르른 대나무 숲이 인상적인 죽녹원과 푸조나무, 느티나무 등 170여 그루의 나무가 아름다운 풍치림을 이루고 있는 관방제림, 이국적이며 환상적인 풍경의 메타세쿼

이아 길 등 담양의 대표 명소들이 소개된다.

이 명소들은 2024년 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및 문화부 로컬 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돼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번 촬영분은 오는 2025년 3월 방영될 예정이며, 방송을 통해 담양의 자연미와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예정이다.

이영노 담양군수는 "이번 촬영을 통해 담양의 매력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담양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순천시, 2024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 국제심사 거쳐 10개 작품 선정...도심·정원 연결 긍정평가

순천시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2024아시아도시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도시의 모범이 되거나 성과를 이룬 도시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

부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시상엔 아시아 지역 예비심사와 국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한국, 중국, 홍콩,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이 본상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발상의 전환! 도시공간 혁신의 새로운 시작-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를 주제로 응모해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순천만 국가정원

과 시가지 사이의 재해예방 저류시설 및 4차선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전환해 도심과 국가정원을 연결한 수변 녹지공원의 완성도와 시민들의 이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4차선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전환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은 심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심 속 저류지를 광장으로 탈바꿈시킨 결과, 광장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도심까지 생태축을 연결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 "전국 캠핑족 모였다" 전남 숲속 캠핑대회 성황

###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서 개최...트레킹·힐링 콘서트 등 '인기'

보성군이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 '2024년 제2회 전남도지사배 숲속 캠핑대회'가 전국 캠핑애호가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캠핑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제2회 전남도지사배 숲속 캠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특별한 오늘 이야기'를 주제로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자연환경과 산림 레포츠를 연계해 추진됐으며, 전국에서 130여팀, 500여명

의 캠핑애호가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오색 단풍이 물든 자연 속에서 ▲숲속 트레킹 대회 ▲가족 힐링 콘서트 ▲나뭇잎 가족사진대회 ▲캠핑 요리대회 ▲보성에서 장보기 영수증 이벤트 ▲플로깅 보물찾기 등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개막식에서는 지역예술인과 보성청소년팀, 보성군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져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보성의 대표 농특산물인 녹차와 키위 전사·판매 부스가 행사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이어진 '숲속 트레킹 대회'에는 가족단위 참여객 300여명이 수변데크와 삼나무숲길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가족 힐링 콘서트'에서는 팝페라 가수 공연과 비올라 연주, 가족 장기 자랑이 펼쳐져 즐거움을 선사했고, '나뭇잎 가족사진대회'에서는 단풍잎을 활용해 가족의 얼굴을 그려보는 특별한 체험이 이어졌다.

보성농독을 활용한 '캠핑 요리대회'에서는 '녹동 동파육', '녹동 카나페', '마라 먹은 녹동 꼬치' 등 수준 높은 요리가 출품돼 참가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어린이 참가자들을 위한 곱빼미, 질리안, 목공미니어처 체험, 카프라 쌓기 체험 등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캠핑 애호가들이 제암산자연휴양림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다. <보성군 제공>



'2024년 제2회 전남도지사배 숲속 캠핑대회'에 참여한 전국 캠핑 애호가들이 제암산자연휴양림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다. <보성군 제공>

## 장흥 유치면, 친환경 인증100% 달성 비전 선포

### 화학비료·농약 사용 최소화 목표...실천 다짐 퍼포먼스도

장흥군은 20일 "지난 18일 유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 인증 100% 달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환경 보호와 지역 농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 유치면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치면은 친환경인증 100% 달성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최소화, 도양 건강 복원, 농산물 판로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선포식에서는 농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친환경 농업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치면엔 '환경과 사람 모두가 건강한 농업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장흥군은 유치면 친환경 비전선포를 계기로 다양한 친환경농업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읍 상류에 위치한 유치면은 지속적인 환경보전의 필요가 높은 곳으로 친환경농업에 최적의 청정지역"이라며 "유치면 친환경농업 선포식을 계기로 장흥군이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

## 화순군, 2분기 생활인구 34만5천명 기록

### 郡 주민등록인구비 5.7배 ↑ ...가을꽃 축제시기 증가

화순군의 올해 2분기 생활인구가 군 주민등록인구의 5.7배인 34만4천836명으로 집계됐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89개 전체 인구조사지역에 대해 24분기(6월 기준)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조사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해당 발표에서 올 2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만941명과 외국인 1천56명, 체류인구 28만2천839명을 합쳐 34만4천83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순군 체류인구는 군 주민등록인구의 약 4.6배 규모인 28만2천839명

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류인구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인구 6만명 규모의 고흥, 해남군과 비교했을 때 화순군은 7-8만명의 체류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서는 5월 대나무축제 등의 영향으로 담양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37만3천83명)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체류인구 또한 가을꽃 축제 시기인 2024년 3-4분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류인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